

: 임철성 Rev. Chul Sung Lim

: 정진부 (214) 734-0815, 전희준 (224) 551-0775

: Yun Choi (847) 971-7242, John Kim (248) 894-2106

: 서요셉 김태한 이신형 김영래

: 이영걸 유진경

: 김종규 손기원 임명기 정병철 김형곤 김승식

: 김순철 한성호 이 훈 우현종 이병준

: 김사무엘 정규상 함성택 허만춘 김광근 이기수 함용철 강진산 김인철

김광식 용성순 함덕준 박양성 김언한

제1795호 2019년 8월 18일

복장규정(Dress code)

미국에 오기 직전 4년 동안 부산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어느 주일에 정장 안에 컬러셔츠를 입었더니, 선임목사가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교회 교역자 복장규정은 하얀색 긴 와이셔츠와 검정색 구두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부산에서는 더 엄격한 복장규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설마 20년이 지난 요즘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꽤 불편하고 어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헤브론 교회에 복장규정이 있는지요? 옷입기는 문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규칙이어서 이를 무시하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미국에서도 동부와 서부의 옷입기가 다릅니다. 동부 리버티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와 목사들은 대체로 정장이 기본입니다. 매일 대학생들과 함께 드리는 경건의 시간에 서부에서 오신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도 서부정장이라는 남방 대신 검정색 정장과 넥타이를 매고 설교를 하시더군요. 메릴랜드 벤엘교회 교역자 복장규정은 일과시간에는 언제나 정장이었습니다. 그래야 목사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성도들의 마음이 편하다는 안내였지요. 버지니아에서 주일 오후에 반바지 차림으로 외출했다가 교인과 마주쳤는데, 매우 어색해하시길래 서로 웃고 말았습니다.

헤브론교회 부임 후, 1년반 정도는 언제나 정장이었다가 차차 편하게 입습니다. 설교를 마치면 넥타이 먼저 푼다. 구역예배나 선교회 초청이 있을 때도 시간만 되면 가볍게 갈아 입고 참석합니다. 며칠 전 어느 교역자로부터 복장규정을 질문 받고 정리했습니다. 교역자의 복장규정은 공식예배(금요일예배와 주일예배)와 심방시엔 정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의 일과시간에는 최대한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도록 할게요. 주일학교와 EM교역자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선에서는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로 존중하는 정도에서 선을 그을까 합니다.

2019. 8.18. 임철성 목사 올림

